

나무 3000만 그루 심어 '푸른 광주 만들기'

공원·도로변·아파트 등에 2027년까지 年 300만 그루씩 현장조사 거쳐 마스터플랜 확정

광주시가 오는 2027년까지 총 3000만 그루의 나무 심기에 나선다. 광주시는 '시원하고 푸른 광주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매년 평균 300만 그루씩 총 3000만 그루 나무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것이다. 지난해 8월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스터플랜을 확정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 시설녹지, 가로공간, 유희부지 등 공공부지 3299곳에 17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또한, 민영 아파트 위주로 택지개발 시 조정 식재면적 확대 등을 통해 아파트 등 민간부지에는 13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을 예정이다. 수종은 미세먼지·열섬 저감 효과가 큰 나무를 주요 수종으로 선정하고, 열섬 발생 및 미세먼지 분포 정도를 조사해 구역별로 조성 지역을 정했다. 더불어 도시녹화네트워크 개념의 공공부지 녹지 조성·열섬 완화 숲·미세먼지 저감 숲을 만들기 위한 세부사업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녹색복지 숲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

도심 364곳을 대상으로 19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영산강·황룡강변 등 100년 숲 조성 ▲도심 내 초·중·고교의 미래 숲 조성 ▲아파트 등 바람길을 막고 있는 담장을 허물어 커뮤니티정원 조성 사업 ▲휴식과 만남이 있는 도시정원 사업 등이 추진된다. 도심 자투리 공간 및 골목길 나대지 등에 녹지 한 평 늘리기와 도로변 울벽·건물 벽면 및 옥상에 담쟁이 등을 조성하고, 보행자 전용도로와 주요 가로변에 숲길을 조성해 열섬 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열섬 완화를 위해 광주 시내 2473곳에 790만 그루의 나무가 심어질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와 산업단지, 공원 등 462곳에 720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 미세먼지 저감용 녹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녹지 한평 늘리기 사업과 건물 옥상과 벽면의 도심 입체 녹화사업,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등의 도심 주요 공간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앞으로 마스터플랜에 따라 녹색 복지 숲·열섬 완화 숲·미세먼지 저감 숲으로 구분한 10개의 단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대경 광주시 공원녹지과장은 "시민에게 산소를 공급해주는 나무를 많이 심어 도시 숲들이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다스어나 해결해줄기를 기대한다"며 "지속해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취임 1년 서대석 서구청장

"주민 눈높이 맞춘 소통행정 사람 중심의 시민자치 실현"

한가족나눔·특화도서관 등 서구만의 브랜드사업 추진 직원 자유계시판 행정혁신 1년간 국·시비 866억 확보



"소통을 중심으로 한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마을총회·학교총회 활성화 등 사람 중심의 시민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서구민 한가족나눔운동, 그린빌리지 조성, 생태친화 특화도서관 육성 등 서구만의 브랜드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석(58) 서구청장은 취임한 이래 지난 1년간 주민들과의 소통, 직원들과의 소통에 힘썼다. 기존 관례를 과감히 탈피하고 주민·직원 눈높이에서 정책을 수립하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다.

행정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게 된 배경에는 서구청장이 비관료 출신 첫 서구청장이기 때문이다.

취임 후 서구청장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구청 조직 단합이었다. 노사 갈등이 됐던 내부 전산망 자유계시판을 4년 만에 부활시켰다.

서구청장은 "직원들의 유일한 소통 창구였던 자유계시판은 정책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아낀소리를 스텝 없이 표현하는 곳"이라며 "자유계시판을 통해 정책에 대한 많은 조언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자유계시판을 여론 수렴 통로로 활용한 서구청장은 불합리한 부분을 과감히 고쳐나갔다.

십수년간 이뤄지지 못했던 공무원 정보 인사를 단행했고 지난 4월부터는 여성공무원 숙직 시범운영을 호남 공공기관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또 10년 만에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노조를 행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해 내부 갈등을 해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민뿐 아니라 직원에게까지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인사를 하며 '폴더 구청장'이란 별명을 얻기도 했다. 서구청장의 탈권위 행보는 대학 시절 투신했던 민주화운동에서 비롯됐다. 전남대를 재학할 당시 광주 불꽃야학에서 활동하며 민주화 열사들과 교류했고 신군부를 비판하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구속됐었다.

정부 폭력을 직접 경험했던 서구청장은 행정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구청장은 "평가나 상을 염두해 두고 일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 1년간 주민들의 협조가 있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민의 의견을 잘 청취하면서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역사 현장·풍물서 건축물 변천사까지 광주 근·현대 100년 사진으로 만나다

市 '시정각자료실' 홈페이지 사진 기록물 4만여점 공개

광주읍성, 광주군청, 광주전 노천시장 등 사라진 광주의 옛 모습은 물론 1900년부터 현재까지 광주의 역사를 조망하고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시정각자료 4만여점이 시민에게 공개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의 역사 현장, 풍물, 관공명소 등 시정각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광주시 시정각자료실 홈페이지'(www.gjarchive.kr)가 7월1일부터 운영된다.

이용은 무료이며, 홈페이지 '자료요청' 메뉴에서 사진 제목 등을 적어 요청하면 된다. 단 저작권이 있는 작가의 사진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사진은 제외된다. 이번 홈페이지 구축은 시가 소장한 사

진, 필름 등 시정각자료 중 이용 가치가 높은 자료를 엄선해 시민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2018년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 디지털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홈페이지 제작 등 과정을 거쳤다.

현재 자료화된 시정각자료 4만여점은 사료 컬렉션, 주제분류, 사료 콘텐츠로 구성됐다.

사료 컬렉션은 시가 1900년부터 2000년까지 촬영하거나 수집한 사진 3620점, 슬라이드 7190점, 필름 5796점, 사진작가 작품 1043점 등이다.

주제분류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촬영된 자료 중 현장감 있는 사진을 엄선해 2만6000여점을 모았다. 이를 행정, 문화·관광, 체육, 교통 및 건설, 기관 및 시설, 환경, 국방·외교, 산업, 인물 등 9개 주제로 나눴다.



1943년 증축된 옛 광주시청사(1969년 계림동 신축이전).

사료 콘텐츠는 광주 주요 건물의 변천사, 전시회, 사라진 풍물과 명소 등으로 분류했다. 광주시는 또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 ▲옛날과 현재의 변천과정 촬영 ▲360도 브이알(VR) 사진 촬영 등 새로운 콘텐츠도 계속 발굴할 예정이다.

김준영 광주시 자치행정국장은 "기록

물은 과거를 거울삼아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며 "시정각자료는 광주의 옛 모습과 발전 과정을 생생하게 담고 있는 중요한 기록물로 지속해서 자료를 확충해 양질의 자료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청소·시설물 관리 계약 일자리창출 기업에 가산점 광주시 일반용역 심사기준 개정

광주시는 7월1일부터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광주시와 자치구, 소속 행정기관이 발주하는 청소·시설물 관리 등 일반용역에 대한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규정이다. 새로 개정된 기준에는 신규채용 우수

기업과 여성·장애인·청년 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경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 항목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자본과 규모가 열악한 지역 중소기업이 시 발주 용역 사업을 낙찰받을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험이 많은 기존의 기업이 장입 기업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기업이 공공조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광주시는 특별히 기술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시설물 관리용역의 기술 배점을 삭제하는 등 시정 진입 장벽도 대폭 낮췄다.

이밖에 지역제한 전문공사 입찰 금액을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조세포탈자 등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내달 15일부터 발표되는 공고분부터 개정된 세부기준이 적용된다.

김성배 광주시 회계과장은 "기준을 개정함으로써 영세 업체의 자생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확대를 위한 대책을 계속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 기자 cki@

그린궁 HOME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